

사회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번역가 네트워크 연구: 한국문학 영어 번역 공역자를 중심으로

최은경(한국외대)

1. 서론

사회학적 전환과 함께 번역 주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번역 과정에서 누구와 어떻게 작업하는지 역시 번역학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인간과 기계의 공동 작업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번역 과정에서 주체들 간의 협력은 필연적인 것이다. 특히 문학번역 과정에서는 다양한 주체들(번역가, 저자, 편집자, 에이전트, 출판인 등)이 서로 역할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행위자로서 협력하고, 이들의 관계가 번역 및 출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여러 주체들의 협력관계를 번역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최은경, 2022; Cordingley & Manning, 2017).

문학번역 과정에서의 협업(collaborative translation)은 작가-번역가 사이의 협업, 2명 이상의 번역가들이 협업하는 공동 번역,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 번역 등 다양한 관계를 지칭하며 점차 그 범위를 확장해 가는 추세지만(Huss, 2017, p. 448-450), 국내에서는 아직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국내에서 주로 언급되는 분야는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에서의 공동 번역이다. 이때의 공동 번역은 단독 번역과는 달리 하나의 작품을 두 사람 이상의 번역가가 번역하는 방식을 일컫는데, 하나의 작품을 여러 명이

나누어 번역하는 것과는 구분된다. 한국문학의 공동 번역은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면서 외국어로 번역하는 한국인과 목표 외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면서 한국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최권진, 2017, p. 7)을 지칭한다.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이 대부분 출발 국가인 한국 내의 주도로 일어나고,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며 한국어를 번역할 수 있는 번역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 번역은 출발어 이해와 도착어 수용성을 높이는 상호보완적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권은희와 성초림, 2016).

그간 몇몇 연구에서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시 공동 번역의 예시와 의미를 기술한 사례가 있었으나(권은희와 성초림, 2016; 최권진, 2017), 실제 수행되는 공동 번역의 비중에 비해 관련 연구의 수는 미미하며, 기존의 연구들은 공역자 간 사회적 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문학 번역 서지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문학 작품들의 번역가 사회 연결망을 분석하여 공동 번역 네트워크 구성 및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결망 분석과 관련된 용어는 국내에서 충분히 통일되지 않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이 되는 **Social Network Analysis**는 국내에서 번역·출판된 저서들을 참고하여 ‘사회 연결망 분석’으로 표기한다. 다만 **Network**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 ‘네트워크’로 음차하여 표기하고자 한다.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인과성에 대한 관심과 광범위한 사회 연결망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 정보의 축적을 기반으로 각종 학문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 연결망 분석은 “특정 인물들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 구조의 전체적인 특성을 통해 관련된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려는 시도”(Mitchell, 1969, p. 2)이다. 예컨대 학술지의 공저자(co-author) 네트워크를 분석하면 개별 연구자들의 역할과 영향력뿐만 아니라 개별 연구자 간의 사회적 관계, 학문 내 협력 관계, 지식 구조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김용학, 2012; 김용학과 김영진, 2016). 이에 본 연구는 사회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한국문학 번역가 네트워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공역자들 간의 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네

트위크 구조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공역 동향을 파악하며, 한국문학 영어 번역가들의 사회적 협력 관계와 구조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번역가 간 협업과 공역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에서 공동 번역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에서 공역자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징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사회 연결망

사회 네트워크, 사회망, 사회적 관계망 등의 용어로도 불리는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은 1954년 Barnes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경계가 있는 집단이나 범주, 연결 관계의 패턴을 나타낸다. “하나 이상의 관계(relation) 유형에 의해 연결된 네트워크 구성원의 집합, 즉 행위자(actor)의 집합”(곽기영, 2014, p. 6; Wasserman & Faust, 1994)으로 정의되며, 구조적, 관계적 특성을 가지는 사회 연결망에서 집단 내의 개인은 ‘노드(점)’으로, 그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라인(선)’으로 표시하는데,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구축하는 사회 연결망 구조를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행위자를 파악하고, 그들 간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를 식별하며, 그것을 구조적인 형태로 묘사”(이수상, 2018, p. 32-33) 할 수 있다. 사회 연결망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1 연결 정도(degree)

하나의 사회 연결망 내에서 행위자가 얼마나 많은 연결 관계를 가지는냐는 정보의 노출 정도, 영향력 등과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행

태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Hanneman & Riddle, 2005). 연결 정도는 한 노드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노드의 개수, 즉 노드의 총 연결 관계 수를 나타내며, 연결된 라인의 수로 측정한다(Knoke & Yang, 2008, Wasserman & Faust, 1994, 김용학과 김영진, 2016, p. 91). 연결 정도가 크다는 것은 보다 많은 행위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행위자의 활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중심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고립노드(isolate node)라고 한다.

2.1.2 밀도(density)

연결 정도가 다른 행위자와 연결되는 노드의 정량적 수를 나타내는 반면 밀도는 연결 정도의 수준을 나타낸다(Scott, 2000). 노드 사이의 연결이 많을수록 밀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여기에 네트워크 크기(네트워크 내 행위자의 수)를 반영하기 위해 밀도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총 관계의 수와 실제로 연결된 관계 수의 비율로 측정하며,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는 응집력(cohesion)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곽기영, 2014, p.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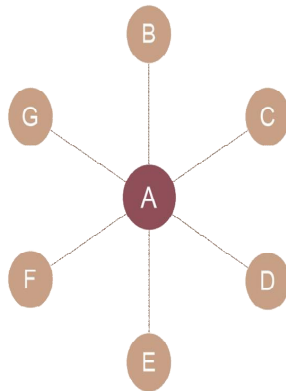
밀도는 라인을 기반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에 따라 포괄성(inclusiveness)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포괄성은 “한 그래프에 포함된 노드의 총 수와 그 수에서 고립노드를 뺀 수의 비율”(Scott, 2000; 김용학과 김영진, 2016, p. 92)을 말한다. 네트워크에 따라 연결된 노드의 개수가 같더라도 촘촘하거나 성기게 연결될 수 있고, 라인의 개수가 동일하다고 해도 국지적 범위에서 연결 관계를 유지하는지, 넓은 범위의 노드들과 연결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네트워크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노드를 기반으로 하는 포괄성의 개념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2.1.3 중심성(centrality)

관계적 특성을 통한 영향력 행사를 강조하는 사회 연결망의 관점에서 행위자가 차지하는 위치와 관계는 영향력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앙성으로도 불리는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행위자가 차지하는 중심적 위치를 통해 누가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Hanneman & Riddle, 2005; Knoke & Yang, 2008, Scott, 2000). 집단 구성원

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소시오메트리(sociometry) 개념에서 중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는 <그림 1>과 같은 스타 네트워크이다(Scott, 2000).

그림 1
스타 네트워크와 중심성(곽기영, 2014, p. 183)



<그림 1>에서 A는 다른 여러 행위자들과 연결 관계를 갖고 있어서 1의 연결 정도를 가지는 다른 행위자들에 비해 높은 연결 정도를 갖는다(연결 정도 6). 이는 더 많은 자원 교환의 기회를 의미하며, 어느 한 행위자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낮아 더 큰 자율성을 갖게 된다. 또한 가장 짧은 경로로 다른 행위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다른 행위자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행위자들 사이의 중개 혹은 소외를 가능하게 하는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각각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인접/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사이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이라고 한다(Freeman, 1979).

2.2 연결망 분석 선행연구

사회 연결망 분석은 사회 연결망 데이터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으로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Scott, 2000). 구체적으로는 분석 대상이 되는 구조를 행위자와 관계의 함수로 정의하여 그래프, 선형 대수,

통계확률을 이용하고, 특정 S/W 프로그램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며 결과를 시각화하여 보여준다는 특징을 가진다(Wasserman & Faust, 1994; Scott, 2000에서 인용됨). 사회 연결망 분석은 본래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연결망에 대한 관심과 전자 정보의 축적, 분석 기술의 개발에 힘입어 사회과학을 넘어 언어학, 교육학, 문헌정보학, 간호학, 정보과학 등의 학문 분야로 확산되었고, 통섭적 연구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곽기영, 2014; 김용학과 김영진, 2016, p. 9; 이수상, 2018, p. 34). 이에 따라 분석 대상을 언어, 사건, 지식 등으로 하는 네트워크 분석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이수상(2018)은 이를 활용 영역에 따라 사회 네트워크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 사건 네트워크 분석, 지식 네트워크 분석, 복잡계 네트워크 분석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분류에 따르면 그간 국내 번역학 내에서 수행된 관련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언어 네트워크 분석에 해당한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언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텍스트에서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추출하고, 키워드를 선정하여 그들 간의 연결 관계를 토대로 네트워크를 구성 및 분석하는 확장된 형태의 내용분석 방법을 일컫는다(이수상, 2014, p. 50-52; 2018, p. 101-105). 언어 네트워크 분석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는 논문, 기사 등을 활용한 연구 동향 분석, 담화의 관계적 분석, 공기어(co-occurrence word), 연어(collocation) 관계 등을 파악하는 어휘사용 분석 등이 있는데, 국내 번역학 내에서 네트워크 분석은 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메타연구에서 활용되어 왔다. 여러 동향 분석 선행 연구 중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네트워크 분석의 범주에 포함되는 연구로 이창수(2018; 2019), 최문선(2019), 유한내(2020), 정나영과 이지환(2022a; 2022b), 김미랑과 마승혜(2024)를 꼽을 수 있다. 이창수(2019)는 국내 번역학 학술지들의 초록을 코퍼스로 구축하여 키워드를 분석하였고, 유한내(2020) 역시 키워드 연결망 분석을 통해 국내외 통번역 분야 연구 동향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대규모 문헌 텍스트에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연구 동향을 연구한 사례들도 있다. 이창수(2018)는 시기별 문헌의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번역학 연구』 연구 주제의 통시적 변화를 보여주었고, 최문선은 ‘기계 번역’이라는 특정 주제에 대해 정성적 내용 분석 뿐만 아니라 번역학

과 공학 분야의 키워드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정나영과 이지환(2022a; 2022b)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국외 번역학 연구 동향 및 국내 뉴스 번역 연구 경향성을 파악하였으며 김미랑과 마승혜(2024)는 2000-2023년 사이에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 학자들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학술지를 대상으로 분석했다면, 보다 최근에는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관련 뉴스 헤드라인을 의미 구성 연결망 분석에 적용하여 메시지가 형성되는 구조적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등장하였다(천종성과 강수정, 2022). 연결망 분석을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해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텍스트로 확대하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현상이지만,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더욱 다양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 번역가 네트워크 분석에 사회 연결망 분석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간 공동 번역가 연결망 분석이 시도된 적은 없으나 사회 연결망 분석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공저 네트워크(co-author network) 연구에서 그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공저 네트워크는 복수의 저자들이 특정 학술 지식을 생산하는 경우 저자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노드는 저자를, 링크는 공동연구 혹은 협력적 관계를 가리킨다(이수상, 2010, p. 4; 2012, p. 96). 이수상(2012, p. 97)에 따르면, “누구와 공동연구를 할 것인가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행위이다.” 따라서 공동 저자들의 협력 관계를 네트워크로 분석하면 학술공동체에서 협력의 구조적 형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개별 저자의 사회적 관계나 학술적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나 학문 분야별 공저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즉 공저 형태의 고유한 특성을 비교할 수도 있다(김용학 등, 2007; 이수상, 2010; 이재운, 2014). 이러한 공저 네트워크의 연구 방법을 차용하여 본 연구는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에서 복수의 번역가들이 번역에 참여한 경우, 개별 번역가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번역가들의 네트워크 구조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 연결망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분석 데이터

한국문학 번역 서지정보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운영하는 한국문학 디지털 도서관 온라인 아카이브를 활용하였다. 해당 도서관은 한국문학 번역 서지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10일 기준 약 50개 언어로 번역된 총 6,981건의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지정보에는 저자, 공저자, 역자, 공역자, 출판사, 출판연도, 출판 국가, 원작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언어권의 서지정보를 분석하여 언어별 번역가 네트워크를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가 방대하고, 소수 언어의 경우 언어 장벽으로 번역가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본 분석에서는 영어로 번역된 한국문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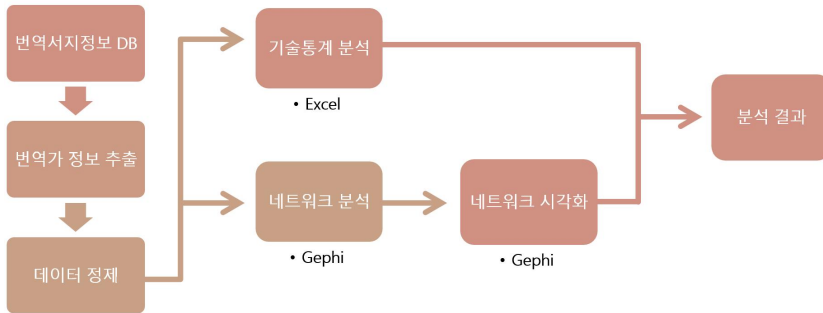
‘영어’로 분류되어 있는 번역 서지는 총 1,368건이다. 다만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문학 번역 서지정보>에는 한국 작가가 영어로 쓴 작품, 문학 작품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도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목록을 일일이 살펴보며 동일한 내용이 중복된 경우, 출발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경우(영어로 쓰인 *Pachinko*의 번역서 등), 그림책을 포함하여 번역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작가 평전 및 정기 간행물 등을 제외하였다. 여러 명의 번역가들이 각각 번역한 단편을 묶은 시선집, 문집에 번역가가 6인 이상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역시 공동 번역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원문 도서 제목, 번역가 등 세부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표지 및 내지를 확인하여 보완하였다. 작가, 번역가 등 동일 인물에 대한 영문 표기가 다른 경우 역시 확인 후 표기를 통일하였다.

분석 데이터에는 최초의 한국문학 번역·출판이라고 알려진 James S. Gale의 번역 *The Cloud Dream of the Nine*(『구운몽』)이 발표된 192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약 100년간 출간된 도서를 포함하였다. 해당 기간에 영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도서 정보 중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복 및 오류 건을 제외하거나 보완하여 총 912건의 분석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적 분석과 사회 연결망 분석을 기반으로 한 공역자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기술적 분석은 구성된 데이터 912건을 엑셀(excel)로 정리하여 번역가 수, 연도별 공동 번역 추이 등을 분석하였다. 이후 연결 정보, 중심성 등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는 공개 소프트웨어인 Gephi(버전 0.10.1)을 활용하였다. 분석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한국문학 번역가 네트워크 분석 절차



4. 분석 결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1 기초 분석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제공하는 19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의 <한국문학 번역 서지정보>를 대상으로 번역가 관련 기초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912건의 번역 서지정보에 등장한 번역가 수는 중복 포함 1,160명이 고, 중복을 제외하면 실제 한국문학 영어 번역에 참여한 번역가는 442명이

다. 따라서 편당 평균 저자는 약 1.27명이며 한 명의 번역가는 평균 2.62편의 번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한국문학 영어 번역 번역가 기초 데이터(1922~ 2024.08)

번역 서지(편)	번역가수(명)		편당 공역자수	번역가당 번역편수
	등장번역가수	중복제외 번역가수		
912	1,160	442	1.27	2.62

표 2

한국문학 영어 번역 전체 번역편수 및 공역편수(1922~ 2024.08)

구분	1922-1931	1932-1941	1942-1951	1952-1961	1962-1971	1972-1981	1982-1991	1992-2001	2002-2011	2012-2024	합계
전체 편수(편)	2	1	2	8	22	41	94	102	202	438	912
공역 편수(편)	0	0	0	0	0	9	25	16	71	85	206
비율(%)	0	0	0	0	0	21.9	26.6	15.7	35.1	19.4	22.6

지난 약 100년간의 전체 번역 편수 및 공역 편수를 10년 주기로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912편의 한국문학 번역 건 중 206편이 공동 번역되었으며, 비율로는 22.6%에 해당한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972년~1981년까지는 41편 중 9편, 1982~1991년까지는 94편 중 25편, 1992년~2001년에는 102편 중 16편, 2002~2011년에는 202편 중 71편, 2012년~2024년까지는 438편 중 85편이 공동 번역되어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에서 공역은 2000년대에 가장 활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평균 공동 번역 비율은 약 23%로, 공동 번역이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활용되어 온 번역 방식임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는 1990년대 초까지 외국어에 능통한 한국인 중심의 번역, 외국인과 한국인 번역가의 2인 체제 공동번역(~2010년대), 그리고 2010년 이후 한국어에 능통한 원어민 번역가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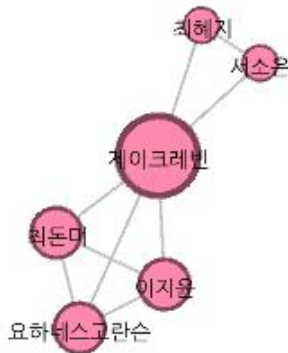
의 번역으로 번역가 세대가 변천해 왔다는 기존의 번역가 세대 구분(김민정, 2022)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동 번역이 단순히 한국문학 번역이 가지는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취했던 중간 단계가 아니라, 여러 번역 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권은희와 성초림, 2016).

또한 총 206건의 공동 번역 중에서 2인 공동 번역의 편수가 176건 (85.4%)으로 가장 높아 2인 체제의 공동 번역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임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2인 공동 번역은 외국인 번역가와 한국인 번역가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3인 공동 번역이 21건, 4인 공동 번역이 7건, 5인 공동 번역이 2건이었다.

4.2 공역자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Gephi를 통해 분석한 한국문학 번역 공역자 네트워크는 번역가를 노드(점), 공역 관계를 링크(선)로 설정하여 네트워크 관계를 표현하였다. 노드는 번역을 수행한 행위자인 번역가를, 링크는 이들 사이의 공동 번역 작업을 의미한다.

그림 3
한국문학 영어 번역 공역자 하위 네트워크 예시



한국문학 공역자 네트워크 중 하위 네트워크 보여주는 <그림 3>의 예시에 사회 연결망 분석을 적용해 보면, 여기에서 행위자가 되는 6명의 번역가는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번역가는 점으로 표시되었다. 번역가 Jake Levine은 최혜지, 서소은과 『히스테리아』를 3인 공동 번역하였고, 이지윤, 최돈미, Johnnes Goransson과 함께 번역 시집 *Poems of Kim Yideum, Kim Haengsook & Kim Min Jeong*을 출판하였다. Jake Levine은 5명의 다른 번역가들과 연결되어 있어 5라는 가장 높은 연결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한국문학 번역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Jake Levine은 5명의 서로 다른 번역가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거나 함께 공역을 수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론상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 최혜지라는 번역가가 최돈미 번역가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Jake Levine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네트워크의 모든 번역가들은 다른 번역가에게 도달하기 위해 Jake Levine을 거쳐야 하기에 이 번역가는 매개 중심성이 높고, 이는 노드의 크기로 표현된다. 반면 Jake Levine은 다른 누군가를 거치지 않아도 직접 협력자들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하여 높은 인접 중심성을 가진다. 이에 연결 정도, 중심성의 측면에서 Jake Levine이라는 번역가가 해당 네트워크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문학 영어 번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저자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지표(<표 3>)를 살펴본 결과, 총 노드 수는 239, 링크 수는 171개로 나타났다. 가능한 총 연결의 수에서 실제 연결의 비율을 보여주는 네트워크(그래프) 밀도는 0.006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밀도가 낮다는 것은 번역가들이 개별적이거나 소규모 협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한국문학 영어 번역 작업에서는 참여자 간에 적극적이고 활발한 네트워크 형성이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전체 네트워크 내 하위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컴포넌트 수는 73개¹⁾였다. 평균 연결 정도는 1.43으로 2인 공동 번역이 가장 일반적이라는 기초 분석의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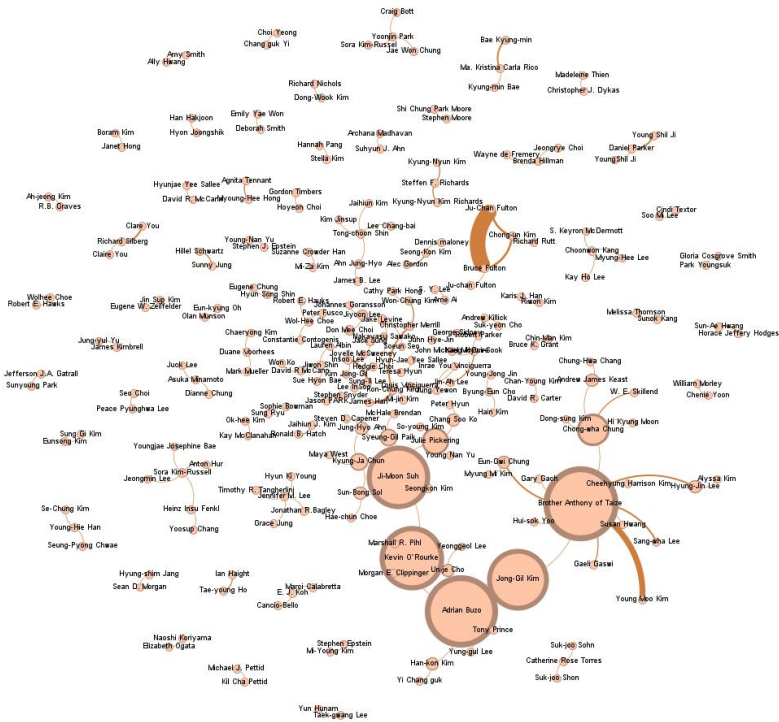
1) 컴포넌트 수는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서브네트워크(하위 네트워크)의 개수를 의미한다(Tarjan, 1972).

표 3
한국문학 영어 번역 공역자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 지표

구분	공역자 수	노드 수	링크 수	평균 연결 정도	컴포넌트 수	그래프 밀도
	323	239	171	1.43	73	0.006

위의 지표를 기반으로 한국문학 공역자의 전체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면 <그림 4>와 같다. 해당 그림에서 각 노드의 레이블은 번역가의 이름을 나타내고, 노드의 크기는 매개 중심성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매개 중심성이 크다는 것은 연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인데, 스타 네트워크의 예시에서처럼 점의 크기가 큰 행위자는 다수의 행위자들 사이에서 매개가 됨을 나타낸다. 한국문학 공역자 전체 네트워크에서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은 번역가는 561의 수치를 가지는 Brother Anthony of Taize(안선재)였고, 그 다음으로는 Adrian Buzo(541), Kevin O'Rourke(473), 서지문(465) 번역가 순으로 나타났다. 안선재 번역가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문학 영어 번역에 힘써왔으며, 국내에 거주하면서 학계와 번역·출판계에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번역 작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협력 관계의 중심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작품을 번역해 온 Kevin O'Rourke, 서지문과 달리 맥쿼리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이자 번역가인 Adrian Buzo는 <한국문학 번역 서지 목록> 중 단 4편의 공동 번역에만 참여하였다. 다만 매개 중심성에서 3위를 차지한 Kevin O'Rourke과 5위인 김종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매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매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한국문학 영어 번역 공역자 네트워크 형태



공역 관계를 나타내는 링크(선)의 굵기는 공역의 빈도를 보여준다. 위의 그림에서 가장 굵은 선은 Bruce Fulton과 Ju-Chan Fulton 사이를 이어주는 링크이다. 이 두 번역가는 현재까지 2인 번역 총 60건, 3인 이상 공동 번역에 4건 참여하여 가장 활발한 공역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다수의 번역이 특정 하위 네트워크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함께 공동 번역에 참여한 번역가들 역시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아, Bruce Fulton과 Ju-Chan Fulton의 경우 연결 정도나 중심성에서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는 네트워크 내의 영향력이 활발한 번역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번역 작업의 특성상 다수의 다양한 번역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아도 번역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2인 이상의 다른 번역가와 협업하는 번역가는 55명에 집중되어 있으며, 단 한 명의 공동 번역가와만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연결 정도 1)가 네트워크 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본 연구는 공역 네트워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번역가들이 다른 관련 행위자(작가, 편집자, 출판인 등)와 가지는 다양한 사회 연결망의 양상, 번역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자본 등을 포함하여 다층적인 번역사회학적 관점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 네트워크 중 가장 높은 연결 정도를 가지는 번역가는 안선재로, 해당 번역가는 특정 번역가가 아니라 여러 번역가들과 협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선재의 경우 65편 이상의 한국문학 번역에 참여하였으며, 연결 정도, 중심성 등 네트워크 내 영향력을 시사하는 지표 역시 가장 높아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문학 영어 번역 네트워크에서 번역가 간 가교역할을 하고 응집력을 높이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문학 영어 번역의 문헌정보 데이터를 토대로 번역자 간 공동협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공역자 네트워크 특성 및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문학 번역 서지정보> 목록 중 19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100년간 영어로 번역·출판된 912편의 서지정보에서 번역가 정보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추출된 번역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데이터 가공 후 Gephi를 사용하여 사회 연결망을 분석하고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유의미한 해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문학 번역가 및 번역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우선, 한국문학 영어 번역에 참여한 번역가 수는 중복을 제외한 442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번역가당 2.62편의 번역이 수행되었다. 특히, 공동 번역의 비율이 꾸준히

유지되어 전체 번역의 약 22.6%가 공동 번역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동 번역이 특정 시기에만 적용되는 대안적 번역 방식이 아니라, 한국문학을 영어로 번역할 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력적 번역 방식으로 기여해 왔음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한국문학 번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역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서는 한국문학 영어번역가 간의 협업 관계를 더욱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총 239명의 번역가들이 공역 네트워크에 참여했으며, 그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링크 수는 171개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밀도는 0.006으로 매우 낮았으며, 이는 번역가들이 개별적이거나 소규모 협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문학 영어 번역 네트워크의 특성은 번역가 간의 정보 교류와 공역을 포함한 다양한 협업 가능성에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네트워크 형성과 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공역자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2인 공동 번역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초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2인 공동 번역의 비율이 85.4%에 달했으며, 그 중에서도 외국인 번역가와 한국인 번역가의 협업이 주를 이루었다.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에서는 번역가 안선재가 가장 높은 연결 정도와 매개 중심성을 보였으며, 이는 그가 여러 번역가들과 협업하면서 한국문학 번역 네트워크 내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선재는 65편 이상의 한국문학 작품을 번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 내에서 그의 중심성은 다른 번역가들이 협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번역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자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Bruce Fulton과 Ju-Chan Fulton의 경우와 같이 특정 공역 네트워크 내에서 활발하게 번역이 이루어졌으나 다른 번역가들과의 연결이 적으면, 연결 정도나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문학 영어 공역자 네트워크 내에서의 영향력이 왕성한 번역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번역가 간의 협업 관계는 특정 네트워크에 집중되거나 고립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매개 중심성과 번역 작업 간의 상관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결 정도가 낮은 독립적 네트워크와 밀도가 높은 하위 네트워크가 혼재되어 있는 구조적 형태는 한국문학 영어 번역이 다양한 번역 방

식과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회 연결망 분석 지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면의 한계로 인해 연결 정도나 중심성 등 특정 측정 지표에만 집중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데이터 정제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지정보의 번역가 표기 오류 등으로 인해 정확성이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서지정보를 중심으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으므로, 향후 실제 공역 방식과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번역가의 다양한 네트워크 중 한국문학의 영어 번역에 한정하여 통계적 데이터와 네트워크 속성 지표를 분석한 기초 작업으로, 향후 한국 번역 출판 생태계의 현황과 특성을 고찰하는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번역가, 작가, 출판인, 편집자 등 다양한 관련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연구로 확장될 수 있으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 번역가 네트워크와의 비교, 다양한 네트워크 영향력 지표 및 모형의 추가 분석 등을 통해 번역가들의 번역 활동을 사회적 관점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기영. (2014). 소셜 네트워크 분석. 청람.
- 권은희, 성초림. (2016). 한국문학번역의 2인 공동번역체제에 관한 고찰. 스페인어문학, 81, 31-52.
- 김미량, 마승혜. (2024).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국내 번역학 연구자의 연구 동향 분석 (2000년-2023년). 문화와 융합, 46(20), 487-496.
- 김민정. (2022). 한국문학의 미래를 만나다. 클투라, 98, 30-40.
- 김용학, 김영진. (2016). 사회 연결망 분석. 박영사.
- 김용학, 윤정로, 조혜선, 김영진. (2007). 과학기술 공동연구의 연결망 구조: 좁은 세상과 위치 효과. 한국사회학, 41(4), 68-103.
- 유한내. (202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외 통번역 연구동향 비교. 통역과 번역, 22(1), 135-158.

- 이수상. (2010). 공저 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297-315.
- 이수상. (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논형.
- 이수상. (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 이수상. (2018). 피인용 최상위 학술논문의 서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내 사회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53-71.
- 이재윤. (2014). 공동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중심성 지수에 대한 비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3), 153-179.
- 이창수. (2018). 국내 번역연구의 어제와 오늘: 텍스트 마이닝 분석 —『번역학연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2), 234-252.
- 이창수. (2019). 2010년대 국내 통번역학 연구 동향에 대한 키워드 분석. *번역학연구*, 20(5), 107-129.
- 정나영, 이지환. (2022). 국내 뉴스 번역 연구 경향성에 관한 메타분석. *인문사회21*, 13(4), 1505-1518.
- 정나영, 이지환. (2022). 국외 번역학 연구 동향에 관한 계층적 클러스터링 분석-라우트리지 학술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3(5), 1493-1506.
- 천종성, 강수정. (2022).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관련 기사의 의미구성에 대한 연구: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네트워크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4), 37-65.
- 최권진. (2017). 한국 문학 작품 번역 방법에 대한 일고(一考).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6(4), 5-19.
- 최문선. (2019). 국내 번역학 기계번역 연구 동향: 내용 분석과 키워드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24(1), 275-285.
- 최은경. (2022). 한국문학 영어 번역의 번역사회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Barnes, J. A. (1954). Class and Committees in a Norwegian Island Parish'. *Human Relations*, 7, 39-58.
- Cordingley, A., & Manning C. F. (2017). What is Collaborative Translation? In A. Cordingley & C. F. Manning (Eds.), *Collaborative Translation: From*

- the Renaissance to the Digital Age* (pp. 1-30). Bloombury.
- Freeman, L. C. (1979).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3), 215-239.
- Hanneman, R., & Riddle, R. (2005).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https://faculty.ucr.edu/~hanneman/nettext/Introduction_to_Social_Network_Methods.pdf.
- Huss, J. T. (2019). Collaborative Translation. In K. Washbourne & B. Van Wyke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Literary Translation* (pp. 448-467). Routledge.
- Knoke, D., & Yang, S. (2008). *Social Network Analysis*. SAGE Publications.
- Mitchell, J. C. (Ed.). (1969). *Social networks in urban situations: analyses of personal relationships in Central African town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Scott, J. (2000).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SAGE Publications.
- Tarjan, R. (1972). Depth-First Search and Linear Graph Algorithms. *SIAM Journal on Computing* 1(2), 146-160.
- Wasserman, S., &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ploring co-translator networks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Eun-Kyoung Choi (ek.choi@hufs.ac.kr)

Departmen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co-translator networks involved in translating Korean literature into English, employing Social Network Analysis (SNA). With growing interest in the sociology of translation, particularly regarding interactions between various actors in the translation process, collaborative translation has emerged as a key topic in Translation Studies. Utilizing extensive bibliographic data from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this research maps and analyzes co-translation networks, focusing on Korean-to-English literary translations. It examin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se networks, identifying key actors and patterns. The study addresses two central questions: (1) What is the current state of co-translation in translating Korean literature into English? (2) What are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se collaborative networks? Through a comprehensive network analysis of 912 translations involving 442 translators, the study highlights the dynamics of collaborative translation practices, contributing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sociological dimensions of literary translation. This research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the collaborative processes and relationships that shape the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into English, offering a fresh perspective on the interplay between translators in the literary field.

Keywords: Translator network; co-translator network; social network analysis; literary translator, collaborative translation

키워드: 번역가 네트워크, 공역자 네트워크, 사회 연결망 분석, 문학 번역가, 공동 번역

최은경(<https://orcid.org/0009-0003-7779-5585>)

한국외국어대학교 EICC학과 초빙교수

ek.choi@hufs.ac.kr

논문 투고일: 2024년 8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4년 8월 30일

2차 심사 완료일: 2024년 9월 9일

게재 확정일: 2024년 9월 14일